



## 당신은 어떤 순간들로 채워져 있는가?

미국 시인 마야 안젤루는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인 메리 올리버는 묻는다. “당신은 단지 조금 숨을 쉬면서 그것을 삶이라 부르는가?”

숨 막히게 사랑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가? 숨 막히게 몰입한 순간, 삶과 숨 막히게 접촉한 순간이. 그것이 꼭 거창한 순간일 필요는 없다. 맨발로 비를 맞는 순간, 섬에서 붉은 보름달을 감상한 순간, 히말라야 능선에서 눈보라 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당신은 어떤 순간들로 채워져 있는가?

- 류시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中

마음이 힘든 어느 날 연주를 들으며 대성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음악과 하나 되어 대성당을 가득 채울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음악과 빛 때문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대성당이 만들어지기까지 함께 해 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정성, 희생의 마음이 함께 공명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당에서 듣는 음악은 더 특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위로와 치유의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음악회가 아니더라도 매일 미사 때 파이프로르간이 연주됩니다. 어느 가까운 주일에 성지로 미사 봉헌하러 오십시오.

## 통일기원 남양 성모마리아 대성당 봉헌 방법

“1구좌 100만원” (1구좌 당 한 명의 이름으로 봉헌하실 수 있으며 매월 13일과 23일 두 대의 미사가 봉헌됩니다.)

1. 일시봉헌 : 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신 후 성지사무실로 알려주세요.

농협 355-0038-5043-43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2. 분할봉헌 : 100만원을 매월 2만원씩 또는 형편에 따라 분할하여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남양성모성지 사무실 전화 031) 356-5880 | 팩스 031) 357-5775 | 이메일 go3mail@empas.com

※ 대성당 봉헌이 끝난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대성당 건립과 성지 운영을 위해 성모님께 장미꽃 한 송이 바치는 마음으로 5,000원이나 10,000원씩 꾸준히 봉헌하는 후원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양성모성지 후원회비 보내주실 곳

농협	355-0038-5041-73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신협	137-003-248126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우체국	100131-01-005451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우리은행	1005-102-636520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기업은행	450-037748-04-023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576601-04-039821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성함이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이체 후 전화나 이메일로 꼭 알려주세요.

E-mail : go3mail@empas.com

# 가족이 함께 걷는 묵주기도의 길 - 남양성모성지



행복한 결혼을 위한  
조건은 뭘까요?

짧은 기억력이지.

월간 소식지 2025. 12. **416호**

18260 경기도 화성시 남양성지로 112 (남양읍)

전화 사무실 : (031) 356-5880

성물방 : (031) 356-8880 / 팩스 : (031) 357-5775

## 짧은 기억력

이상각 신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아버지는 독일 출신의 사진작가였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자주 묻곤 했습니다.

영화 '프리다'에는 프리다 칼로가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행복한 결혼을 위한 조건은 뭘까요?"

아버지는 아주 간결하게 말합니다.

"짧은 기억력이지."

아주 인상적이며 지혜로 가득한 대답이지요.

잊어야 할 사소한 잘못과 실수들을 잊지 못할 때 괴롭습니다.

"신부님, 제가 남양성모성지에 간다고 하니깐 한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신부님은 돈 이야기만 하는데... 돈 이야기밖에 없어.'"

'짧은 기억력'으로 잊어버리면 좋을 텐데...

쉽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아 슬픈 마음이 들게 합니다.

서운한 느낌, 서운한 감정일수록 쉽게 잊혀지지 않지요.

'잊어야지' 하면서도 같은 상황에 처하거나 그 사람을 만나면 서운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잊어야 할 것들을 잘 잊어버리는 것이 우울하고 슬픈 감정에서 빨리 벗어 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보면 '짧은 기억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 붙들어서 좋을 것 없는 이야기나 나쁜 감정들을 빨리 잊어버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쁘고 슬픈 일, 불편한 기억들은 '짧은 기억력'으로 잊어버리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후원금부터는 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전자기부금 발급을 위해 필히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는 1차 25년 8월 19일 우편 발송, 2차 25년 10월 22일 링크 문자 발송해 드렸습니다.)

- 제출 마감 : 2025년 12월 15일(월)

- 제출 방법 : 팩스(031-357-5775), 문자(010-5281-6123), 이메일(go3mail@empas.com)

또는 (문자로 받으신) 링크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이상각 신부님 유튜브 채널, 유튜브 검색창에 "이상각 신부" 입력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함께 해 주세요.



## 모든 성인의 통공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로마 14,7).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1코린 12,26-27).

사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1코린 13,5).

우리가 사랑으로 한 가장 작은 행위라도 모든 성인의 통공을 바탕으로  
모든 산 이와 죽은 이의 연대 안에서 모든 이의 유익이 되도록 퍼져 나간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953항)

교회는 곧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상 교회와 정화의 과정 중에 있는 연옥 영혼들의 교회, 하느님 나라의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954항). 거룩한 것들의 공유와 친교는 지상교회를 넘어 천상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특히 하느님과 보다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성인들은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해 줍니다. 성인들과의 친교 안에서 그들의 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친교, 교회 공동체의 일치는 더욱 강화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957항). 또한 우리는 죽은 이들에 대한 기억을 커다란 신심으로 소중히 간직해 왔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도움이 필요한 연옥 영혼들이라면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천국에 있는 영혼이라면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전구를 더욱 효과 있게 할 수 있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958항).

- 안효철 신부, 2025년 1월 12일 춘천주보 4면 中

### 성녀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콕의 속죄

구세주께서는 성녀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위로자로 또 보속의 희생자로 정하셨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 해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었습니다. 제가 성체를 모시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갑자기 어떤 영혼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영혼은 이글거리는 불꽃을 내뿜고 있었는데, 마치 제 몸도 그 영혼과 함께 불에 타

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영혼의 가련한 상태를 보고 연옥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았고,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 흐느껴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불쌍한 영혼이 언젠가 제가 고해성사를 받았던 베네딕도 신부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부님은 당시, 제게 자주 영성체할 것을 명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하느님께서 저에게 신부님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기도를 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답니다. 신부님은 저에게 석 달 동안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고통을 당하든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하느님께 바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신부님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신부님은 저에게 왜 자신이 연옥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나의 외적인 명성에 너무 신경 쓰느라 하느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영광에 더 신경을 썼으며, 동료에 대한 형제애가 부족했으며, 결국에는 영적 지도에서도 피조물에 대한 큰 애착에 지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마음을 몹시 거슬렀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던 후 석 달 동안 말가리다 수녀는 마치 자신이 불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불꽃의 순교에서 은총의 꽃은 피어나는 법이다. 약속한 석 달이 지나자 그 사제는 연옥에서 해방되어 넘치는 기쁨과 영광에 휩싸여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 사제는 자신을 해방시켜 준 성녀의 기도와 희생에 감사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성녀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마리아 86호)

## 슬픔 속에 부르는 믿음과 희망의 노래

“연도가 났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왜 모르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아마 비신자들에게는 마치 암호처럼 알쏭달쏭한 말이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를 연도(煉壽)라고 불러왔습니다. 연도는 연옥의 영혼을 위해 바치는 기도라는 의미에서 온 말인데요. 지금은 ‘위령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연도가 났다”는 말은 주로 ‘상이 났으니, 위령기도를 바치러 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느 신자의 집에 상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연도가 났다”고 서로에게 알립니다. 신자들은 이렇게 여러 신자들과 함께 빈소를 찾아 빈소에 ‘연도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요.

‘연도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위령기도, 연도는 보통 선창자와 후창자가 주고받으며 우리 고유의 구성진 노랫가락에 맞춰 바칩니다. 우리 소리에 담긴 기도문에 어쩐지 더 정감이 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토착화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통입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위령기도를 노래로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도는 단순히 노래로만 바치는 위령기도가 아니라 보편교회의 기도가 우리 문화와 정서, 전통에 잘 융화된 우리 고유의 기도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렇게 위령기도에 우리 가락을 붙여 연도를 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박해시대부터 연도가 자리 잡았다고 추정됩니

다. 박해시대 우리 선조들은 신자 집에 장례가 나면 밤을 새워 기도해 줬다고 하는데요. 이때 연도를 바쳤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연도는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 조금씩 다른 가락으로 노래해 왔는데요. 1991년 연도의 가락이 오선악보에 수록됐고, 2003년 한국교회 차원에서 「상장예식」을 마련하면서 전국 모든 신자들이 같은 가락으로 연도를 바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신앙선조들은 연도를 노래로 바쳤을까요? 신앙선조들이 상장례 때 사용한 「틴쥬성교례규(천주성교예규)」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틴쥬성교례규」에는 “왜 소리 높여 노래하며 연도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노래하는 소리로써 내 생각을 들어 주께 향하게 해 내 마음을 수렴하게 하고 더욱 구원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밝히고, 또 “우리가 죽음의 슬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슬픔은 희망 없는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르기 때문”이라 전합니다.

혹시 ‘연도를 노래로 바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불편해하신 적 없으신가요? 하지만 가족이 세상을 떠나 슬픔에 잠겨있을 때, 빈소에서 이어지는 연도 소리는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 연도는 신앙 공동체가 한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부활을 향한 믿음과 희망을 노래하는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이번 위령 성월이 가기 전에 누군가를 위해 한 번쯤 연도를 바치시면 돌아가신 분께도, 또 우리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가톨릭신문, 2022년 11월 10일, 이승훈 기자

남양성모성지에서는 매월 첫 금요일,  
성 요셉 경당 기억의 돌에 이름을 새긴 영혼들을 위하여 위령기도를 바칩니다.  
또한 설, 한가위, 위령의 날에도 우리가 사랑했던 영혼들을 기억하며 함께 위령기도를 바칩니다.



## 무릎이 되어주는 일

나는 아주 유능한 에이즈 전문 의사를 안다. 루시아는 지금도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정을 집에 모시고 있다. 그녀는 출근하기 전 몇 분 동안 할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곤 한다.

그녀의 할머니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 할머니는 가족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지혜를 타고난 사람이었다. 루시아가 아주 어려울 때 고양이가 사고로 죽었다. 어린 루시아는 처음으로 접하는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부모님은 루시아에게 고양이는 하늘나라에 있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했다. 루시아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루시아는 하느님께 고양이를 돌려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느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루시아는 울면서 할머니에게 왜 하느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다른 어른들처럼 고양이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대신 할머니는 루시아를 꼭 껴안아 주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를 상기시켜주었다.

“루시아야, 그때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돌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느님은 들어주지 않으셨단다.” 할머니는 루시아에게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루시아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실컷 울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쳐다보았을 때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비록 할머니가 물음에 답해 줄 수는 없었지만 루시아는 상실감과 외로움이 얹어지는 것을 느꼈다. 죽은 고양이가 하늘나라에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은 아무런 위안이나 힘이 되지 못했다. 그녀가 말했다.

“레이첼, 제 할머니는 무릎이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말하자면 영혼의 쉼터였지요. 저는 에이즈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무릎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직면해야 하는 고통

을 혼자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그런 장소가 되어주는 거죠.”

안식처나 영혼의 쉼터란 우리가 부닥친 삶에서 도망쳐 갈 도피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힘을 얻는 장소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헤쳐 나갈 힘을 얻는 장소를 찾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 레이첼 나ومی 레멘, 「할아버지의 기도」 中

###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위로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말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직면한 무한한 고통을 덜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기를 잃은 어머니, 에이즈에 감염된 젊은이, 집이 불타 버린 가정, 부상당한 군인, 자살을 기도한 십대 청소년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하는지 의심하는 노파를 위로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로하는 것은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헨리 나우웬, 「영혼의 양식」 中

## 밀알의 죽음

“우리는 죽음을 향해 살지 않고, 삶을 향해 죽는다.”

큰아들 요나스가 네 살 때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했던 말이 기억난다. 차 안에서 아내와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는데, 아무 말 없이 뒷자리에 앉아 있던 요나스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엄마, 우리가 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줄 알아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만약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안다면, 아무도 더 이상 여기서 살지 않으려고 할 거잖아요!”

순간 우리는 말문이 막혔다. 어떤 면에서 요나스는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존재는 임시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계도피적인 완전성의 동경으로, 주어진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역경과 실망을 통과해 여기서 우리의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올 세계를 낳는 산통이다. 우리는 늘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죽음조차 과정이다.

예수님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고 말씀하셨다. 이 말에 임시성과 완전성에 대한 신비로운 열쇠가 있다. 밀알은 일시적이다. 풍성한 이삭은 커녕 아직 싹도 아닌 상태다. 하지만 이런 일시성은 밀알에게서 밀알에 담긴 중요성이나 의미를 전혀 앗아가지 못한다. 인간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이 앞으로 올 세상의 삶보다 덜 중요하거나 덜 참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동이 임시적이고 잠정적이고 일시적일지라도, 밀알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밀알의 비유는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밀알처럼 작고, 밀알처럼 짧은 삶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면서, 우리가 있다 간 흔적을 남기고자 할 것이다. 보잘것없는 ‘현재’ 상태와 무조건 ‘되어야 하는’ 상태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이미 써버린 시간과 아직 남은 시간을 끊임없이 비교할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시간과 힘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떤 상황과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 그런 삶은 스스로 최종적인 것이 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애쓰는 밀알과 같을 것이다.

오늘날 이미 하느님과 가까이하며 사는 삶에는 다른 자유가 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살지 않고, 삶을 향해 죽는다. 마지막 내어줌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상적인 내어줌을 통해 우리 안에 즐고 있던 것이 삶으로 깨어난다. 이것이 은혜의 아름다움이다. 죽을 때 우리는 삶의 형태를 바꾸지만, 파멸되지 않는다. 이것이 임시성의 자유다.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끝장을 볼 필요도 없다. 우리는 최종적인 것이 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최종 버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시적인 삶에 완전함이 깃든다. 임시적인 삶은 밀알의 죽음처럼 가치가 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픔도 묻어난다. 그는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한 알로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한 알로 남으면’, 즉 ‘자신만을 위해’ 살면 그는 생명을 그르친다.

- 마틴 슐레스케, 「올림」 中



## 머리가 좋아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의 어머니는 훌륭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지닌 신앙에 대해 못마땅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신앙에 관한 한 전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신앙 덕분에 우리 형제들이 모두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 조카가 아주 어리지만 가족의 저녁기도를 이끌 기도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5살짜리 조카가 제게 자기 머리가 좋아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너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저에게 자기가 여전히 머리가 좋지 않으니 삼촌이 기도를 잘 안 해 주었나 보다고 말합니다.

저는 조카를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 아이가 하느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이가 모든 것을 알약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소란스럽다고 정신과 약을 먹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 V. 안토니오 사지 VC, 「아주 특별한 순간」 中

###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

매년 새학기가 시작될 무렵 후원 가족 중 대입 수험생들의 명단을 받아 영원한 도움의 성모 신심미사가 봉헌되는 매월 둘째 토요일마다 그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수능시험 전 9일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이러한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의 마음이 하느님을 향해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2025년 대입 수험생을 위한 9일 기도

11월 4일(화)~12일(수) 9일간

## 남양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수험생을 위한 9일 기도

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저의 어머니시여!  
저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인자하신 어머니, 남양의 성모 마리아여!  
저희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9일 기도를 바치며  
그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당신께 봉헌하고자 하나이다.  
당신의 한없는 자비심에 의탁하여 청하는  
저희의 9일 기도를 어여뻐 들어 허락하소서.  
선하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마리아여,  
당신께 저희 자녀들의  
희망과 행복을 걸겠나이다.  
저희 자녀들을 당신의 외투로 감싸주소서.  
저희 자녀들이 이번 시험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도우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강,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너무 긴장하거나 당황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성령의 신부이시며,  
성령의 궁전이신 어머니 마리아여,  
성령께서 당신 안에 머무르시는 것처럼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의  
힘 있는 전구를 통하여  
저희 자녀들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소서.

오, 협조자이시며 위로자이신 성령이시여,  
당신의 빛으로  
저희 자녀들의 지혜를 밝혀 주시어  
올바로 판단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당신의 평화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시어  
침착하고 실수 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대입 수험생을 위한 9일 기도

대입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지에 기도와 미사를 부탁한 대입 수험생들의 이름을 제대 위에 올려놓고 수능시험 전 9일 동안 함께 기도와 미사 봉헌합니다.

기간 : 2025년 11월 4일(화)~11월 12일(수)

일정 : 미사 전 묵주기도, 수험생을 위한 9일 기도 / 11시 미사

## 제1회 화성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

12월 5일(금)~12월 7일(일) <화성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가 개최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동혁, 첼리스트 문태국, 그리고 소프라노 강혜정 등 그 명성만으로도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일 연주자들로 구성된 본 공연은 12.5(토) '현을 위한 하루', 12.6(토) '피아노를 위한 하루', 12.7(일) '바흐를 위한 하루' 라는 컨셉으로 구성됩니다.

- ▶ 2025.12.5(금) 19:00 <페스티벌 앙상블 : 현을 위한 세레나데>
- ▶ 2025.12.6(토) 14:00 <신박 듀오 : 다뉴브의 추억> 해설 : 송현민 (매진)  
17:00 <임동혁 : 이방인의 서사시> 해설 : 조희창 (매진)
- ▶ 2025.12.7(일) 15:00 <문태국 : 바흐 무반주 첼로> 해설 : 조희창 (매진)  
17:00 <미리 듣는 해설 : 바흐 B단조 미사> 해설 : 이준형 (매진)  
18:00 <페스티벌 합창단&오케스트라 : 바흐 B단조 미사>

공연장소 :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소성당

티켓가격 : 전석 1만원 ※ 12.7(일) 18:00 공연 전석 2만원

티켓예매 : 인터파크,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관람등급 : 8세(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 12월 12일(금), 과달루페 성모 채플 봉헌식

과달루페 성모님은 1531년 멕시코 테페악 언덕에서 후안 디에고에게 발현하셨다.

성모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과달루페'라 부르게 하셨다. 이는 '돌뿔을 쳐부수다'라는 뜻인데, 돌뿔은 아즈텍인들이 섬기던 날개 돌친 뿔이다. 아즈텍인들은 해마다 2만 명 이상의 여자와 아이들의 심장을 뿔에게 피의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그러나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 7년 만에 800여만 명의 아즈텍인(당시 멕시코 인구의 대부분)이 가톨릭으로 개종함으로써 수많은 여자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후안 디에고의 털마에 그려진 성모님은 앞가슴에 까만 띠를 하고 계시는데, 이는 멕시코 원주민 복장에서 아기를 임신했다는 표시이다. 교회는 과달루페 성모님을 '아기를 잉태하고 계신 성모님'으로 바라보며 생명의 어머니라 부른다.

남양성모성지에서는 매월 넷째 토요일에 생명 수호를 위한 묵주기도를 바치고 과달루페 성모 신심 미사를 봉헌하며 생명 수호 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당 채플 중 한 곳에 과달루페 성모님을 모셔 놓았습니다. 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 12월 12일(금) 11시 미사 중 과달루페 성모님 채플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 100단 바치기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일시 : 토요일 오후 2시

(둘째 토요일은 성령기도회)

장소 : 남양성모성지 열두 개의 별 경당

## 남양성모성지 성령기도회

일시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시~6시

11월 8일(토) 마진우(요셉) 신부님

12월 13일(토)

장소 : 남양성모성지 열두 개의 별 경당

일정 : 4시 말씀 특강 / 5시 미사 및 치유 안수